

금메달 50개·종합 3위 목표... 한국 선수단 항저우 입성

39개 종목 선수 1140명 출전

단장 “스포츠로 국민께 행복을”



1년 연기 끝에 23일 개막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의 선수단 본진이 20일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났다.

최윤 단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오는 23일 막을 울려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대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들은 각 종목 경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날 출국하는 본진에는 권순우(당진시청)를 비롯한 테니스 대표팀 14명, 사격 대표팀 17명, 하키 대표팀 22명, 스케이트보드 대표팀 7명이 포함됐다.

최윤 단장과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총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35명도 이날 함께 떠났다.

출국장에서 다 함께 모인 선수단은 태극기와 선전 기원 현수막을 곁에 두고 ‘팀 코리아 파이팅!’을 우렁차게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선수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축구 훈련장 공개 여부 등 현지 운영이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개회식을 하고 나면 잘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은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로 종합 3위에 오른 바 있다.

최윤 단장은 “종합 3위를 이룰 수 있을 거로 믿는다.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확인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스포츠를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한다. 국민들과 선수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테니스의 간판스타 권순우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간절하다.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 “지난주 국가대표전(데이비스컵)을 치르고 온 만큼 컨디션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근대5종 국가대표 전용태(광주시청·오른쪽)가 20일 중국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대5종 펜싱 랭킹 라운드 경기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선수단 경기 일정은 전날인 19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19일 오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의 헤트트릭 등을 앞세워 9-0 대승을 거둬 한국 선수단 전체 첫 승리를 신고했다.

인도현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 배구 대표팀은 이날 인도와 조별리그 C조 첫 경기에 출격하며, 근대 5종과 조정 등도 경기 일정에 들어간다.

21일엔 태극의 남자 축구 조별리그 2차전, 캄보디아와의 남자 배구 2차전 등이 이어진다. 메달 레이스는 개회식 다음 날인 24일부터 본격화한다.

본진 현지 도착 이후 한국 선수단은 21일 항저우 선수촌 공식 입촌식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성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

KIA ‘가을 야구’ 또 약재
“부상 회복에 집중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가을 잔치’에 또 약재가 발생했다. 팀의 중심타자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을 마무리했다.

6연패 늪에 빠진 KIA가 톱타자 박찬호의 손가락 부상에 이은 약재를 만나면서 순위 싸움에 초비상이 걸렸다.

KIA는 지난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시즌 15차전에서 3-4패를 기록했다. 선발 양현종이 문보경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으면서 초반 싸움에서 밀린 KIA는 이후 최형우의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나성범도 3안타를 날리면서 추격의 고삐를 당겼지만 경기는 1점 차 패배로 끝났다.

이 패배로 6연패에 빠진 KIA는 6위까지 추락했다. 설상가상 이날 경기 도중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중도에 교체됐던 나성범이 20일 검진 결과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재활 기간이 10~1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나성범의 2023시즌이 조기 종료됐다.

6연패 기간 두 명의 핵심 공격 자원이 이탈했다.

연패의 시작점이었던 12일 삼성전에서 톱타자 박찬호가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손 4번째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타석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나성범도 연패를 끊기 위해 질주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1-4로 뒤지고 있던 8회말 KIA는 최원준과 김도영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2·3루에서 나온 나성범의 적시타로 3-4 추격에 성공했다.

이후 LG가 마무리 고우석을 8회 무사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나성범이 폭투로 2루까지 갔지만 최형우가 삼진으로 물러났고, 김선빈의 타구가 우익수 방향으로 높게 뛴다. 이때 나성범이 태그업 플레이로 3루까지 질주하면서 2사 3루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성범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주자 이우성과 교체됐다. 소크라테스의 고의사구로 2사 1·3루, 변우혁의 2루 땅볼과 함께 KIA의 8회 공격이 마무리 됐다.

9회도 무위로 끝나면서 나성범의 전력 질주에도 끝내 팀은 연패를 끊지 못했고, 중심타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재활군이 됐다.



19일 LG와의 홈경기에서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됐던 KIA 나성범이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사실상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나성범이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KIA는 나성범의 이탈 속 수비 강화를 위해 일단 김호영을 호출했다.

앞서 황동하를 말소한 KIA는 나성범의 말소로 두 자리를 비워냈다. 이 두 자리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소집에 앞서 21일 한화전 선발로 나서는 이의리와 부상 복귀전에 나서는 산체스로 채울 예정이다.

가다렸던 산체스의 복귀에도 타선의 핵 나성범이 빠지면서 KIA는 험난한 가을을 보내게 됐다.

나성범은 종아리 부상으로 6월 23일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58경기에서 나와 0.365의 타율을 기록했다. 홈런 페이스도 눈길을 끌었다. 올 시즌 25타석에 들어선 나성범은 18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렸다. 14타석 마다 홈런을 날린 셈이다.

최원준, 박찬호, 김도영으로 이어지는 ‘육상부’ 뒤를 받치면서 해결사로 역할을 한 나성범은 출루율도 0.427을 기록했다.

나성범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상이다. 열심히 하려다가 다쳐서 마음이 좋지 않다. 일단은 마음 편하게 먹고 있다 너무 조금하게 하면 더 안 낫고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초반에 부상이 컸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고, 팀 순위가 정말 중요한 때 부상을 입어서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순위 싸움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후배들이 하나 둘 위기를 넘고 높은 곳으로 향하기를 바란다.

나성범은 “빨리 연패를 깨야 한다. 연패 깨고 연승 했으면 좋겠다. 내가 초반에 종아리 부상으로 없을 때도 후배들이 잘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합류... ‘완전체’ 되는 황선홍호

막강한 공격진에 ‘화룡점정’
한국, 쿠웨이트에 9-0 대승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21일 오후 황선홍호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이강인이 21일 오후 항저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21일 예정된 태국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E조 2차전에는 결장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에서 출발해 장시간 비행에 마치고 현지를 밟자마자 이강인은 곧장 그라운드로 내보낼 만큼 황선홍호의 상황이 급한 건 아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전날 쿠웨이트와 대회 첫 경기를 무려 9-0으로 대파하며 잔뜩 기세가 올랐다.

특히 정우영(슈투트가르트·3골), 조영욱(김천·2골), 엄원상(울산), 박재용(전북), 안재준(부천·이상 1골) 등 백승호(전북·1골)를 제외하고 공격수들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신고했다.

이번 대표팀 선수 중 가장 장의적인 공격수로 꼽히는 이강인의 합류는 황선홍호 공격진의 ‘화룡점정’이 될 전망이다.

조영욱은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강인이 빨리 합체하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조영욱은 “경기가 끝나니 강인에게에 문자가 와 있었다.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빨리 와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지난달 22일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이 알려져 치



이강인

료에 전념하던 이강인은 이날 오전 약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날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F조 1차전 홈경기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2-0으로 완파했는데, 이강인이 후반 35분 비타나를 대신해 투입됐다.

이강인은 부상을 완전히 떨쳐낸 듯 짧은 시간이었지만 10여분간 그라운드를 활발히 누비며 날카로운 패스를 뽐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풋몹은 이강인에 평점 6.3점을 줬다.

/연합뉴스

추석 당일 프로야구 경기 50% 입장료 할인

KBO가 추석 당일 프로야구 경기에서 50% 입장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인 29일 진행되는 KIA-기움(고척), LG-두산(잠실), 한화-롯데(사직) 등 총 3경기에서 1만9628명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입장료 할인이 이뤄진다.

이번 이벤트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KIA와 추석 대전을 벌이는 기움은 외야석을

예매하는 전체 4728명에게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두산은 외야석 전체 5800명을 대상으로 50% 할인, 레드석 및 네이비석 예매자 중 선착순 2800명을 대상으로 2000원 할인을 실시한다. 롯데는 외야석 4500명에게 50%, 1루 내야석 1800명에게 30%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대상 좌석 정보는 각 구단 별 티켓 예매 안내 공지 사항과 티켓 구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